

자기 사랑

마태복음 22 장 35 절-40 절

2020 년 10 월 25 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매번 이 계명을 받을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개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36 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The second is like it. 둘째는 첫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 서 4 장 11-12)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19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찌니라.” (요한 1 서 4 장 19 절-21 절)

배나기 모임에서 야고보서를 읽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힘차게, 준엄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라고 외치면서, 행동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받으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대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의 삶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랫동안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면, 교만해지니까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늘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에, 자기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곡해를 하고, 더 나아가,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사랑은 커녕 자기 혐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도취는 다릅니다. 자기 사랑하며 사는 것과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도취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 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하루는 우물에 자기 얼굴이 비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비춰어진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멋이 있는 지, 그 멋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자기 멋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우물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라, 영어로, 자기 도취자를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증세를 나르시즘 이나 나르시스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스의 자기 사랑은, 진정으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 밖에 모르게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최상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며는, 더 심하게는, 자기 가족 밖에 모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밖에 모릅니다. 자기 가족 중심, 자기 민족 중심, 자기 나라 중심이 되며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게 됩니다.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특별히 성장하는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한테, 선생님들로 부터, 또 친구들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미련하다, 너는 능력 부족이다, 넌 못 생겼다, 둔하다,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바보지. 왜 넌 일등을 못하니? 왜 넌 제대로 말을 못하니? 왜 넌 변변치 못하니? 너는 형보다 동생보다 누나보다 못하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화살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찌르면,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한 토막. 한 엄마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집에 돌아 왔는데, 7 살 짜리 딸이, 뭐가 그리도 기쁘고 행복한 지, 룰루랄라 노래를 흥겹게 밥상에서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딸에게, 이 엄마가 “그것도 노래냐? 목소리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그만 뒤”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참 슬프게도, 그 후로, 이 어린아이는 노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혼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는, 바보 아닌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니야, 못 낫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주눅이 들고, 자기를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실패하면 어떻하나, 놀리면 어떻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하나 불안해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사랑, 자기 존중은 커녕, 남에게 인정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 인구가 76 억이 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창세기 1 장에 보려는, 6 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일 창조하신 후에, “좋구나, It is good.” 스스로 감탄을 하셨습니다. 6 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참 좋구나. It is very good”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3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 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5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8:3-5)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왜 고치셨습니까?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놀린 자들을 왜 자유케 하셨습니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 먼자들의 눈을 왜 열어 주셨습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아름다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존재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슨 이유이든간에, 싫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난 쓸모없는 쓰레기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숨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한 동안, 비탄해 하고, 절망에 빠져 살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한 숨을 쉬며 푸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시각이 180 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그 청년의 답이, “이제 다리 하나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리 하나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19 살에 이민 와서,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백인들이 다수인 곳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양인으로, 황색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기를 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건삼이라고 하며는, 왓, 쿤샘, 쿤삼 하였는데, 저를 비웃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영어로 발음하기 힘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썸머 타임 킬러.. 그 영화에 주인공 백인 남자가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신나게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백인 남자 이름이 미치 였습니다. 그래서 건삼 대신 미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몇 주 후에, 한국 친구들이 저보러, 너 이름이 뭐야? “미치” 라고 했더니, “너 미쳤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로 바꾸었습니다. 건삼의 건자가 돌림자입니다. 건갑 건형 건정... 그래서 Sam 이 제 고유 이름이라, Sam 으로 시작하는 영어 이름을 찾았는데, 사무엘하고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은 머리 길고 거인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로 정했습니다. 사무엘 조. 거의 10 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하며는, 사무엘 이라고 하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흑인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임스 콘 이라는 교수님이신데, 흑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흑인 신학을 소개한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면담을 하는 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사무엘 이라고 했더니, 왓? 사무엘 왓? 세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되 물기를, “유태인이냐?” 하더라고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인 사무엘이 제 이름이니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저는 그 때, 31 살, 한국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회심의 날이고, 오랫동안 눌러있던, 자신을 되찾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아 나는 조건삼, 한국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를 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구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웃들을, 영국계 미국인으로, 폴란드계 미국인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종차별로 인하여 미국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흑인들의 생명이 귀하다.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이 슬로건에 반발하여, 백인들은, “모든 생명이 귀하다” 라고 소리 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보며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데려와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흑인들은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치 경제 교육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 인종차별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흑인들의 수가 인구비율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너무 작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웃을, 누구이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듯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듯이,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들과 딸로, 딸과 아들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